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평양건축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2(2013)년 11월

후대교육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사업이며 민족의 흥망성쇠,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이다.

다른 일에서는 전 세대가 다하지 못한것을 후대들이 보충할수 있지만 후대교육사업을 소홀히 하면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장래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되며 그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나라의 장래를 알려거든 아이들을 보라고 하였으며 새 세대들의 맑은 눈동자, 씩씩하고 기백넘친 모습에서 그 전도를 본다고 하였던 것이다.

일찌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래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며 더 아름다와질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린이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고 그들이 희망과 포부를 마음껏 꽃피울수 있도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그처럼 많은 일이 제기되였지만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에 연필문제를 상정하도록 하시였으며 이 땅에 진정한 인민의 대학부터 세우도록 하시였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도 교육사업을 중단없이 계속하도록 하시고 불타는 고지에서 대학생들을 소환하여 공부하도록 하는 사랑의 조치도 취해주신 그이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하도록 하시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락아소와 유치원, 소학교와 중학교, 대학들을 세워주시였으며 학생들의 등교길을 념려하여 통학뻐스, 통학배가 다니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교육조건까지 다 마련해주시여 조선을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만드신 어버이수령님이시다. 《삼흥중학교》라는 학교이름도 손수 지어주시고 곳곳에 소년궁전, 야영소들을 일떠세워주시여 행복의 웃음소리 이 땅에 차넘치도록 해주시였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여 인재육성의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신 수령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이 있어 새 세대들은 배움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시였던 후대관을 한평생 변함없이 고수하여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어려웠던 시련의 시기에도 김일성종합대학과 원산농업대학(당시), 삼지연군 무봉중학교(당시)를 비롯한 교육부문의 여러 단위들을 찾으시여 새 세대들을 래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준비시키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교육사업은 민족의 장래와 후대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사업은 오늘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생관이 담겨진 이 말씀은 그대로 실천으로 구현되였다.

나라가 그처럼 어려운속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에 많은 자금을 들여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으며 발전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자들과 새 세대들에게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안겨주시며 최첨단을 돌파해나갈 인재양성의 넓은 길을 열어주신 장군님이시다.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떠진다고 하시며 교육사업에 세심한 관심과 지도를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에 떠받들려 새 세대들은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속에서도 배움의 글소리 랑랑히 울리며 미래의 역군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강성조선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기둥감들로 성장하고있다. 후대들에 대한 관점은 곧 혁명에 대한 태도와 립장문제이며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홀시하는것은 혁명을 포기하는것과 같다고 하시며 새 세대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후비대, 미래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키우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도 참석하시여 소년단원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는 뜻깊은 연설도 하시였고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여 교육발전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시였다.

평양창전소학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같은 아이들의 교정과 야영소도 훌륭히 건설하도록 하시고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새 세대들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다심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해 이 땅에서는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 보내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에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우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는 주체적인 립장과 안목에서 사회주의교육의 본태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좋은 경험들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이고 우리식으로 발전시켜 교육에서도 당당히 세계를 앞서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따를수 없는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그이의 구상과 결심은 확고하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건전한 정신도덕적풍모와 높은 과학기술적능력,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지닌 미래의 주인공들로 키우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에 떠받들려 새 세대들은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과학기술로 부강조국을 떠받드는 인재로 더욱 믿음직하게 자라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민족교육이 걸어온 력사의 갈피에

오늘 공화국은 가까운 앞날에 온 세계를 앞서나가는 사회주의교육강국건설을 목표로 하고있다.

공화국이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강력한 핵억제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교육사업을 국가적인 중대사의 하나로 여기고 교육발전에 커다란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견지명의 교육중시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항일의 불길속에서 주체교육의 고귀한 전통이 마련되고 해방후 인민적인 교육제도가 세워지게 되였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나날에 동방에서 제일먼저 전반적인 초등의무교육제와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게 되였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도를 마련해주시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같은 불멸의 대강을 밝히시여 만년대계의 교육사업을 순간의 로선상 착오나 자그마한 탈선도 없이 곧바른 강화발전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수령님의 업적은 민족교육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높으신 뜻을 이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후대교육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과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교육과학연구기관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으며 두메산골, 외진 등대섬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든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교육환경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신 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는 그처럼 엄혹했던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떠진다는 교육선행, 교육중시의 현명한 령도로 무료교육, 의무교육이 중단없이 실시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대책들을 취해주시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과 중등일반교육을 개선해나가도록 이끄신 령도의 자욱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삼지연군 무봉고급중학교와 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 락원군 서중고급중학교를 비롯한 대학들과 학교들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된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당은 억만금도 아끼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있다고, 우리는 앞으로도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을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전변시키시고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국가건설의 담당자들로 훌륭히 키우시여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가꾸어오신것은 절세위인들께서 조국의 부강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이룩하신 거대한 공헌이며 주체교육사에 길이 빛날 고귀한 업적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품들여 가꾸어오신 주체적인 민족교육의 화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더욱 찬란히 개화만발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학부형회의로 된 정치위원회

언제인가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문득 차를 멈추게 하시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의 모양이 그이의 시야에 비껴든것이였다.

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아이들을 부르시였다. 환성을 올리며 저마끔 달려와 인사를 올리는 아이들을 만나신 수령님께서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몇학년인가, 집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하나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책가방을 좀 볼가 하시며 한 아이의 책가방을 벗기시였다. 필갑이며 교과서, 학습장을 일일이 살펴보신 그이께서는 글씨도 잘 쓰고 교과서도 잘 거두었다고 칭찬하시였다.

너무 좋아 입을 다물지 못한채 싱글벙글하고있는 그 애에게 수령님께서는 이제 집으로 가면 학습반을 하는가, 학습반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러자 모르는것을 서로 배워주어 좋다는 아이도 있었고 교과서를 함께 나누어 보기때문에 좋다고 대답하는 아이도 있었다. 아이들의 신명나는 대답을 다 들어주신 수령님께서는 공부를 잘하라고 이르신 후 그 자리를 떠나시였다. 아이들과 헤여지신 수령님의 심중에서는 한 아이가 교과서를 함께 나누어보아 좋다고 한 말이 좀처럼 잊혀지지 않으시였다. 결국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가 부족된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에 있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교과서문제가 토의되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다른 출판물의 인쇄는 좀 미루더라도 교과서만은 좋은 종이로 더 많이 찍어주자고 하시며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조처하시였다.

그날 문제토의를 결속하시면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학부형이 아닌가. 오늘의 이 정치위원회는 학부형회의를 한것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아이들 공부시키는 문제를 풀지 못하면 되겠는가고 다시금 그루를 박아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과학중시에 비낀 민족의 미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나라가 부흥하고 강대해지며 과학과 기술발전이 뒤떨어지면 진보와 번영도 멀어진다.

이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지금 공화국의 과학기술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과학중시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밑에 최첨단을 향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8월 삼복철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이미 5월에 그곳을 찾으시여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며 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원수님이시였다.

그날 건설장의 곳곳을 돌아보신 원수님께서는 과학과 인재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혁명을 해야 나라가 흥한다고 하시면서 휴양소운영에 필요한 설비비품들과 기자재들을 갖추는 문제로부터 지열랭난방체계를 도입하는 문제, 잔디와 관상용꽃관목심기 등 휴양소주변정리를 잘하도록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마무리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과학기술을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중시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문제로부터 그들의 생활상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원수님의 관심과 지도는 평양의 릉흥네거리에 건설된 김일성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에도, 평양의 교외 은하과학자거리에도 깃들어있다.

과학자들과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는 교육자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은 정녕 끌을 모르는 친어버이사랑이니 지금 평양의 대동강기슭에는 두개의 쌍기둥을 이루며 김책공업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이 자기의 완연한 자태를 드러내고있으며 은정과학지구에 건설되는 위성과학자거리도 준공을 눈앞에 두고있다.

날에 날마다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그 건축물들은 과학중시, 인재중시를 천하지대본으로 여기시고 공화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중시사상의 응결체이다.

올해 정초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여 올해를 과학기술성과의 해, 과학기술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던 원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뜻깊은 이 글발을 자자구구 심장에 새겨안고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며 과감한 두뇌전, 실력전을 벌리고있다.

자립적인 실용위성의 성공적발사와 세계를 향해나가는 공화국의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은 과학중시의 란만한 화원을 펼쳐주시는 절세위인들의 과학중시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들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시며 온갖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발전과 비약으로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는 공화국의 현실은 사회주의문명국의 지위에 오를 휘황한 래일을 그려보게 한다.

리훈

지식의 탑을 더 높이 쌓아가고있는 정년대학생들

수필

성적증에 대한 생각

부피로 치면 얇은 종이한장, 무게로 치면 얼마나 될가?

머리속에 단지 학업에 대한 평정서로 남아있던 자그마한 성적증이 천만근의 무게를 가지고 나의 심중을 울린것은 얼마전이였다.

평양에서 진행된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를 계기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주옥같은 명언들로 가득찬 새 세기 주체교육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교육대강이다.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것이 오늘날 교육혁명의 목표라 하시며 교육체계를 바로세우는 문제,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문제, 교육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는 문제, 훌륭한 교육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는 문제를 비롯하여 교육발전을 위해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교육사업을 중요한 국사로 내세우고 여기에 우선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며 나라의 교육을 발전시켜 인재강국을 건설하려는 자신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출데 대하여 하신 원수님의 말씀은 나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이의 후대중시, 미래사랑의 뜨거움이 심장에 와닿았다.

이 땅에 후대들을 위한 전설같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가.

경치좋은 동해기슭 송도원에 꾸려진 아이들의 천국이며 아이들을 위한 수산사업소, 웃으면서 들어가고 울면서 나오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병원…

정말이지 이 땅에서는 아이들이 왕이다.

하기에 외신들도 조선에 펼쳐지는 희한한 현실을 두고 《김정은령도자를 모신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고 높이 찬양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미래를 사랑하시는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고있는것이다.

나의 귀전에는 지금도 두해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장에서 앞날의 강성조선의 모습은 소년단원들의 성적증에 먼저 그려지게 된다고 하시며 모든 학생소년들에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이기 위해 시간을 아껴 열심히 배워 지식의 탑을 더 높이 쌓아가도록 불타는 열정을 끝없이 안겨주신 원수님의 축하연설의 자자구구가 들려오는듯싶다.

정녕 새 세기 교육발전의 앞길을 밝혀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로작은 우리 후대들의 성적증에 강성할 조선의 모습, 인재강국의 모습을 그리게 하는 설계도가 아니겠는가.

뿌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 법이다.

따사로운 태양의 빛이 있고 비옥한 토양이 있으며 좋은 자양분을 받아 뿌리내린 씨앗은 쭉정이를 모른다.

나는 생각했다. 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교육사업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있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성적증은 5점, 만점으로 최우등의 성적만을 기록할것이라고.

리경순